

전주페이퍼,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5억 투자

전주시-전주페이퍼-푸른전주, 투자협약... 2024년까지 팔복동·만성동 지역 등에 시민 위한 정원·숲 조성

지역 대표기업인 전주페이퍼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조성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전주페이퍼(생산본부장 김경식), (사)푸른전주(상임대표 정명운)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페이퍼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5억원을 후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전주페이퍼는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팔복동과 만성동 지역 등 전주시민을 위한 정원과 숲 조성에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조성부지 제공 및 사후관리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사)푸른전주는 정원·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경식 전주페이퍼 생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 내 직원 및 인접 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와 관계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해 일상이서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숲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풀판지 원지, 신문용지, 산업용지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주페이퍼는 매년 100만 톤의 폐지를 재활용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친환경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와 전주페이퍼(생산본부장 김경식), (사)푸른전주(상임대표 정명운)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페이퍼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5억원을 후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윤상기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담은 사이트 개설

기어잡 대문을 여는 소리와 추지도 몽돌해변의 공간을 등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이 담긴 사이트가 생겼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효과음원 제공 플랫폼인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개설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억원을 들여 전 통소리, 자연의 소리 등 총 7개 분야 3만 여 건의 영화 효과음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재까지 영화·영상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 후반 제작에 활용 가능한 효과음원 1만8,340건을 제작했으며, 4월부터는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www.jsoundlibrary.kr)'를 통해 음원을 창작자 및 효과음원 수요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20개의 효과음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한국적 소리 자산과 정서를 담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서비스 개시를 통해 창작자와 수요자의 공공서비스 향유권이 대폭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글로벌 IT기업들과 밝은 미래 연다

AI 기술 적용·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김승수 시장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만들 것"

전주시가 글로벌 IT기업인 네이버 손을 맞잡은 것은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일부 업무에 AI(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되면 보다 폭넓은 모니터링으로 방역 및 전염병 확산 방지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시는 최근 들어 네이버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와 네이버는 전주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로바 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간 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던 단순·반복 업무의 일부가 AI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스마트폰이 없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고령자와 어린이 등의 경우 매일 전담 공무원이 오전과 오후 전화를 걸어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AI가 대신할 수 있다.

시는 또 팔복동 산업단지과 인근 만성지구·혁신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함께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대기환경 서비스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해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시와 LG유플러스는 해당지역에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측정기 20대를 설치해 대기환경을 실시간 감시하게 된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 정보를 수집하고 상시 대기오염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화재나 연기 등을 감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이버의 AI기술, LG유플러스의 자율주행 로봇에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주형 디지털뉴딜에도 (썬한글과컴퓨터,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9,008억원이 투입되는 전주형 디지털뉴딜은 미래 전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

심으로, 시는 이미 한컴아카데미 등 국내 IT기업들과 함께 'J-디지털 교육밸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뉴딜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미래산업 혁신공간인 첫마중길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는 한컴아카데미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 핵심인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또 디지털 특성과 교육으로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 ▲SKT 협력 AI 융합형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국내 IT기업과 IX 등 공기업, 지역대학 등과 꾸준히 협업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획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은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핵심적인 수단인 만큼 한컴, 네이버, LG유플러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지역대학, 카이스트와 협업하여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 "교통, 방법, 미세먼지 해결책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극복하고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전주가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형 슬로마을 1호 '서노송예술촌'

시, 슬로 콘텐츠 추진 적합·한옥마을 연계성 등 좋은 평가 받아 선정

느림의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를 확산시킬 첫 번째 슬로마을로 '서노송예술촌'이 선정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사회혁신전주에서 2021년 제1차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주형 슬로마을 1호로 '서노송예술촌'을 지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주형 슬로마을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동참하며 다양한 슬로콘텐츠로 지속가능한 동네로 가꾸어가는 마을을 말한다.

서노송예술촌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동체 지속 가능성, 문화재생을 통한 슬로철학 실천 가능성, 텃밭 가꾸기 등 슬로라이프 실천을 위한 생태운동과 같은 슬로 콘텐츠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점과 한옥마을과의 연계성이 좋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노송예술촌을 지나는 관삼도로의 경우 도로가 곡선화돼 차량 서행이 유도됐다. 또 폐쇄된 성매매업소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향후 시는 슬로마을을 추가로 발굴해 서노송예술촌,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형 슬로마을' 벨트화를 추진해 슬로관광 지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나아가 슬로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슬로라이프 운동을 확산시켜 도심형 슬로시티의 세계적 모델로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향후 슬로마을을 추가로 발굴해 시민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4대 종단·시민단체, 미안마 지지 모금운동

전주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조직을 구성해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4대 종단 대표, 18개 시민단체 대표, 재한미안마전북학생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조직 구성 및 모금활동 전개를 골자로 한 '미안마 민주화 지지 종교·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에스더 무 학생회장으로부터 현 미안마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안마 국민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와 종교단체, 시민단체는 미안마 민주화지지를 위한 연대조직을 꾸려 4월 한 달 동안 단체별 모금활동을 전개한 뒤 연대조직 명의로 모금액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미안마 지원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5일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안마 유학생 9명을 만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미안마 유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미안마사랑 전복연대'는 지난 2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미안마 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군부 독재와 싸워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안마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다스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주화 열망을 짓밟는 미안마 군부의 무력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전주시청 공무원은 물론 4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모임을 주축으로 민주화 지지 모금운동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